

## 『인생극장』

노명우

1923년 그 해에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각자의 인생을 시작했다. 새로 인생극장의 무대에 오른 사람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극장을 떠났다. 여늬해와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그해 1923년, 한 사내아이가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송곡리 65번지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이 세상에 발을 내딛었다. 그로부터 13년 후인 1936년, 서울시 동대문 근처 청계천변의 빈한한 도시 상공인 집에도 딸이 태어났다. 기록에 따르면 1936년에 61만 5천 381명의 사람이 태어났다고 한다. 그 여자아이는 그 해에 태어난 61여만 명의 사람 중 한명이다.

그 둘 모두 명망가의 자제가 아니었으니, 그저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그들의 출생과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는다. 위인전에 흔히 등장하는 태몽도 알려진 바 없다. 돌을 채 넘기지도 않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흔했던 시절이다. 손귀한 집안의 독자도 아닌 9형제 중 8번째로 태어난 남자아이와 7명 형제 중 마지막 막으로 태어난 여자아이의 탄생이 집안의 경사였을리 없다. 농사꾼 집안에서 남자아이의 탄생은 일 손 하나 늘었다고 큰 실망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서울의 가난한 집 딸은 탄생의 축복보다는 눈총을 받으며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송곡리(현재는 충청남도 공주시)와 동대문 청계천변 사이의 직선거리는 150킬로미터를 넘는다. 자동차로 이동해도 2시간이상 충분히 걸리는 먼 거리이다. 그 사내아이와 그 여자아이가 태어났던 그 시절엔 아마도 하루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을 것이다. 그들의 출생지와 가족배경을 그리고 물리적 거리까지 감안할 때 적어도 이론상으론 그 둘이 성장하여 특별한 인연을 맺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생에 예정이란 없다. 줄거리가 예측되는 인생극은 지루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모여 인생극의 묘미를 이룬다. 인생극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그 사내아이와 여자아이는 각자의 삶을 살았다. 그들이 어느 새 어머니의 젖을 떼고, 걷기 시작하고, 어린아이가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 둘에게 ‘공통의 운명’을 강요하는 사회는 변태를 거듭

했다. 그들은 식민지에서 태어났으나 어느 날 거짓말처럼 식민지의 껍질이 붕괴되었고,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끝나고도 UN군은 한 동안 남았다. UN군이 하나 둘 떠나도 미군만은 남았다. 그 낯선 전후질서의 틈바귀에서 그 사이에 30대에 바로 접어들기 시작한 그 남자와, 전쟁을 겪었어도 아직도 소녀티가 남아 있던 열아홉 살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었다. 전쟁으로 인한 요동에 가까운 변동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기적처럼 인연을 맺은 1923년에 태어난 나의 아버지 노병욱 요셉과 1936년에 태어난 나의 어머니 김완숙 세실리아 사이에서 지금 그들의 삶을 기록하는 사회학자인 아들 노명우도 1966년에 인생극장에 발을 내딛었다.

## 내 던져진 계다가 갇혀 버린 우리

누구나 한번은 스무 살을 경험한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 사이의 아들인 나, 우리는 모두 스무 살을 겪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가 맞이한 스무 살의 풍경은 너무나 달랐다. 스무 살이라고 모두 같은 스무 살이 아니다. 노병욱이 1943년에 스무 살이 되었을 때, 그는 공식적으로는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었다. 김완숙은 스무 살에 이미 결혼한 처지였다. 김완숙은 이미 스무 살도 되기 전에 심지어 전쟁도 겪었다. 전쟁도 겪고 어머니로 맞이하는 스무 살은 남자친구로부터 키스와 장미꽃을 받으며 스무 살을 맞이하는 지금의 어떤 여자와는 너무 다르다.

노병욱이라는 자연인이 1923년에 태어나야 할 어떤 필연적 예정은 없었다. 김완숙 역시 1936년에 태어나야 할 필연 따위는 없었다. 1923년에 태어났기에 노병욱이라는 자연인은 식민지의 청년일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집 막내딸로 태어났기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김완숙은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인생에서 제한 없는 선택의 가능성을 마주한 적이 없다. 그들의 인생에서 결정적 장면들은 언제나 제한된 선택지 중 궁여지책으로 고른 결과로 만들어졌다. 노병욱과 김완숙이 스무 살의 나이에 부딪혔던 그 엄청난 사건(Accident)은 그저 우연히(accidentally) 그들의 삶 속으로 침투하고 너무나도 깊은 굴곡의 흔적을 남겼다.

## 역사로 자기 인생을 기록하는 영웅과 필부

한 시대는 이후 시대에 흔적을 남기고, 이전 시대의 흔적을 물려받은 이후 시대는 또 다른 흔적을 미래의 시대에 넘겨준다. 시간의 연속적 흐름 속에서 과거라는 이전의 시간은 현재를 결정하고, 현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이전의 시간과 이후의 시간이 맺고 있는 불가역적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인연으로 표현되면 어떤 사람은 부모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된다. 부모가 살았던 시대의 흔적은 자녀가 살아야 하는 시대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전 세월의 흔적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 어느 시대의 사람이나 부모가 물려준 유산과 씨름해야 한다. 나의 아버지 또한 할아버지의 시간과 씨름하며 자신의 시대를 살아야 했을 것이다.

수많은 행위자가 시간의 유산과 씨름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각 시대를 살아가지만 '당대'에 대한 영향력은 모두 다르다. 어떤 이는 특정시대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정도로 자신이 살아내야 했던 '당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들은 '당대'라는 물결에 투망<sup>投網</sup>하여 자신을 '당대'의 규정력으로부터 예외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래서 그들은 영웅이란 호칭을 얻는다. 영웅이 아닌 필부<sup>匹夫</sup>는 영웅이 내던진 투망에 갇힌 물고기와 같다.

1917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나의 아버지가 태어나기 불과 몇 해 전에 태어난 사람이다. 나의 아버지와 그 사람 사이의 출생년도를 감안하면 그들은 서로 동시대인이라 해도 무방하다. 아버지와 그 사람이 '당대'에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당대'에 가한 반작용은 사뭇 달랐다. 우리 가족만이 1923년에 태어난 아버지를 여전히 기억 하지만 1917년에 태어난 그 사람 박정희를 기억하는 사람은 꽤 많다. 그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딸이 대통령이 되었을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사후에도 그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한 시대를 자신의 이름을 따 명명할 정도로 '당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버지는 1940년 4월 만주국육군군관학교에 2기생으로 입교한 학생<sup>[2]</sup>이자 그 후 1942년 일본육군사관학교 57기에 편입 되었다가 1944년 7월 다카키 마사오<sup>高木正雄</sup>라는 이름으로 러허성<sup>熱河省</sup>에 주둔하고 있던 보병 제8단에 배속된 만주국 장교였던 박정희<sup>[3]</sup>와 달리 징용당한 나고야<sup>名古屋</sup>의 일본군 '조토헤이<sup>じょうとうへい/上等兵</sup>'에 불과했다.

아버지의 삶은 유별나지도 않았다. 아버지의 삶에는 영웅호걸의 극적인 서사가 없다. 남노당에 입당했다가 여순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극적으로 살아났던 박정희의 인생과 같은 극적인 순간이 아버지의 인생에는 없다. 1961년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나이로 군사 구테타를 일으키고 1979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호령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 박정희와는 달리 아버지는 삶의 어느 순간에도 역사를 규정하는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박정희와 같은 당대의 영웅호걸들이 던진 투망에 걸린 그저 국가의 명령에 순응하는 유권자이자 납세자에 불과한 세상에 많고 많은 ‘그저 그런 사람’ 중 한 명 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이름 없는 삶을 살았다. 교육받지 못한 전업주부는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일이 없다. 스무 살도 되기 전에 아내가 되었고 일생을 전업주부로 가정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했던 어머니는 가족 내에서는 ‘엄마’라는 사랑스러운 가족 호칭으로, 밖에서는 ‘노씨 부인’으로 혹은 ‘명우엄마’라 불렸다. 김완숙이라는 이름은 행정서류상으로만 사용되는 이름일 뿐이다. 박정희의 아내 육영수에겐 영부인이라든가 여사와 같은 높여 부르는 호칭이 따라붙지만, 아무런 호칭 없이 이름만으로 홀로 쓰이는 김완숙이라는 이름의 다른 뜻은 무명씨이다.

### 인생을 심정으로 표현하는 ‘그저 그런’ 사람들

시대에 갇히기는커녕, 자신의 의지로 투망을 짜서 시대에 내던지는 예외적인 존재들은 자신의 인생을 역사로 기록한다. 아니 역사 자체가 영웅적 존재들의 인생기록으로 짜인 직조물이기도 하다. 영웅들의 인생은 대하서사시를 닮았고, 서사시를 닮은 영웅들의 인생은 기념비에 담긴다.

역사에 자신의 인생을 기록할 수 없기에 아니 기록될 엄두도 내지 못하기에 무명씨들은 자신의 인생을 숨기는데 능한 재주를 살면서 몸에 익힌다. 자신을 가둔 시대에 대한 심정은 쌓이고 또 쌓이나, 정작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을 기회도 드물고 어쩌다 그 기회를 맞이한다고 해도 ‘그저 그런’ 사람의 심정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마저 명절날 술 한 잔을 걸친 김에 털어 놓은 심정을 뻥하고 뻥한 옛날이야기로 취급하곤 한다.

무명씨들은 아마 평생을 자신의 심정을 숨기는 재주를 키우며 인생을 살았다. 그 심정은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아버지이기에 남자의 심정은 드러내기 쪽스러울 뿐이다. 어머니라면 여자의 심정 따위는 속곳처럼 꿍꿍 숨겨야 했다. 아무리 평생을 ‘심정’을 감추는 재주를 키우며 살아 왔어도, ‘심정’을 아예 억누르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심정’은 슬그머니 그 꼬리를 드러낸다. 그 꼬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증상’과 만난다. 그 ‘증상’은 ‘심정’이라는 핵으로 가만가만히 다가갈 수 있는 통로이다.

### 욕으로 정리되는 20세기: 아버지의 마지막 증상

그렇다. 아버지는 ‘딱 한국의 아버지’였다. 또래의 아버지들이 그리하듯, 자상하지도 가정적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유별나게 권위적이지도 않았던 분이다. 가족과의 정서적 교감을 낮설어 하셨기에 아버지가 품고 있는 심정은 가족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세계였다. 우리는 늘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는 당신의 심정을 식구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2015년 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딱 그 시대의 아버지라는 표준의 범주 안에 들어맞는 ‘그저 그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치매라는 지독한 병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급습했다. 아버지는 인생을 충실하게 복습했다. 거죽은 나날이 늙어가지만 정신은 나날이 어려워 가기만 했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잠시라도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치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생처럼 어머니를 애타게 찾았다. 감정의 기복이 나날이 커져가던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땐 “백구야 훨훨 날지 마라”고 노래를 불렀고, 기분이 조금이라도 언짢아지면 때론 영어로 때론 일본말로 욕을 늘어 놓으셨다. 어찌다 아버지도 어찌 못하는 과거의 기억이 망령처럼 노인의 정신을 휘감으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과거의 그 어떤 일에 사로 잡혀 혼잣말을 늘어놓았다. 치매를 앓는 노인이 구축한 자폐적 세계 속으로 들어간 아버지는 그 세계에서 나오지 않았다.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나라에 타인의 발 딛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병이 깊어질수록, 자폐적 세계는 더욱 단단해 졌고 가끔 아무도 예측하거나 추측할 수 없는 이유로 과거에 가위눌리면 아버지는 ‘빠가야로(ばかやろう)’로부터 ‘마더 펍 유(Mother Fuck You)’까지 동원하며 각종 욕으로 자신의 가장 끔찍했던 기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고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살았던 일본어가 지배했던 식민지 시기에 ‘빠가야로’를, 먹고 살기 위해서 ‘양놈’들을 상대할 수 없었던 전후시기에 대해 ‘갓땀’과 ‘마더 픽유’를 날렸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배했던 60년대와 70년대를 외상값을 갚지 않았던 그 어떤 군인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으로 표현했다. 아버지는 어떤 ‘심정’을 드러내지 못했길래 자신이 살았던 20세기를 당신이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하여 욕으로 정리했을까?

‘그저 그런’ 아버지였지만, 최소한 집에서는 ‘그저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가장이었고, 가장으로 행세했고 가장으로 대접받았다. 비록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아버지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 집에서 만큼은 ‘동굴 속의 황제’였기에 치매 걸린 노인이 된 아버지가 내지르는 욕의 퍼레이드는 이상증상이라기 보다 평상시 증상의 연장이라고 하는 게 맞다. 아버지의 ‘그저 그런’ 사회적 위치로 인해 아버지는 밖에서는 심정을 내지르지 못했겠지만, 적어도 집 안에서 아버지는 심정을 억누를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기쁨과 애정의 표현은 서툴렀지만, 분노는 ‘그저 그런’ 아버지들이 그러하듯 집안에서는 결코 다스릴 필요가 없었으니까.

#### 마지막까지 가만가만한 한탄 : 어머니라는 여성의 성격학적 증상

팔손을 넘긴 어머니가 아흔이 넘은 치매 걸린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처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하다. 아픈 아버지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왜 아내만의 몫이었을까? 한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감은 때로 족쇄가 된다. ‘현모양처’라는 사유의 관습은 아버지 병수발의 책임을 어머니에게 농축시켰다. 어머니 당신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인 나도 그러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속이라고 습관적으로 생각했다.

2015년 4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의 발에 채워졌던 병수발이라는 족쇄가 사라졌다. 아버지는 죽음으로써 족쇄의 잠금장치를 풀어주고 어머니 곁을 떠났다. 아내의 역할을 강요받았던 관습의 잠금장치로부터 벗어난 어머니는 ‘과부의 안락’을 구가하는 ‘자유부인’이어야 했다. 유별나게 권위적인 분은 아니셨지만, 그 시절의 남편들처럼 아니 딱 그 시절의 남자들이 그랬던 것만큼 ‘가부장’이었던 아버지의 아내

였기에 어머니는 자신만의 삶을 살지 못했었다. 대개의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어머니의 삶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그림자가 너무나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남자이자 남편인 아버지는 언제나 독립변수였고 여자인 어머니는 종속변수였다. 독립변수였으나 세밀하지 못한 아버지가 별려 놓은 일의 부수효과는 언제나 종속변수 엄마의 몫이었다. 가슴 조아리며 언제나 종종걸음으로 일을 해치워야 했지만 잘되면 아버지 탓, 안 되면 부족한 내조의 탓으로 되돌려지는 희한한 책임 판단 구조 속에서 어머니는 살았다. 언제나 독립변수였던 아버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독립변수화 되었다. 날이 갈수록 사람을 어린 시절로 데리고 가는 치매, 노인의 고집에다가 어린아이 같은 유아적 사고방식이 더해지면서 아버지는 자신을 신성불가침의 독립변수화 했다.

어머니는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각종 언어의 욕을 동원하여 인생의 심정을 표현했던 아버지와 달랐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민했지만 사려 깊었고, 섬세했지만 까탈스럽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암 선고를 들었던 바로 그 날도 적어도 곁으로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드러내지 않았다.

평생을 가만가만히 살아야 했던 어머니처럼, 폐암이라는 암 중에서도 가장 악성인 암, 조기발견도 쉽지 않고 전이속도는 어느 암보다 빠르다는 그 폐암은 어머니에게 가만가만히 찾아왔다. 여자였기에 어머니였기에 그리고 아내였기에 자신의 심정을 꼭꼭 눌러야만 했던 어머니를 닮은 그 병은 가만가만히 찾아와 야금야금 어머니의 몸을 휘저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는 그 무렵에 가만가만히 찾아온 그 병은 여름이 채 오기도 전에 어머니의 인생극장의 막을 내리게 했다. 평생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제하는 습관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어머니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병을 억누르며 살아야만 했던 심정처럼 꼭꼭 숨기고만 있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가만가만히 인생극장의 막이 내려왔다.

---

[1]칼세이건. 2001. 현정준 옮김. <창백한푸른점>. 사이언스북스.

[2]조갑제. 2006. <박정희. 군인의길1>. 조갑제닷컴.222쪽.

[3]조갑제. 2006. <박정희. 군인의길1>. 조갑제닷컴. 256쪽. 한홍구. 2003. <대한민국사>. 한겨레신문사. 68쪽.